

15강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다(빌 4:21-23)

교회는 서로를 자랑스런 면류관으로 여기며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(4:1-5). 멩에를 같이 짊어지고 걸어가며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,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를 덮습니다. 또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 알게 됩니다(6-13절).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돕는 마음으로 '주고 받는 일'은 서로를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(14-20절).

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

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라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

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

1. 사도 바울 시대에 편지를 끝맺는 인사말은 간략하게 '안녕히~'나 '행운을~'이었습니다. 반면 바울은 '문안하다'(헬, 아스파조마이)를 세 번 사용합니다(21-23절).

- 1) 바울은 빌립보교회더러 누구에게 '문안하라'고 합니까?
- 2) 바울과 함께 빌립보교회에게 문안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?
- 3) 바울이 끝으로 교회를 향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2.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은 '흐름'이 있는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.

1) 교회는 "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" 공동체입니다(3:10, 21).

2) '부활 참여'를 위한 필수 절차인 '고난 참여'는 비단 박해 뿐 아니라 '더 나은 것'을 선택하려 할 때 일어납니다.

나은 것(유익하거나 익숙한 것)	더 나은 것
매임에서 풀려나는 것	복음의 진보/그리스도 전파(1:12, 18)
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(1:23)	살아서 교회와 함께 있는 것(1:24)
자기 일(2:4)	그리스도의 일(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, 2:19-30)
뒤엎 것(3:5-7)	퓏대(3:13)
로마 시민권	하늘 시민권(3:20)
염려	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(4:6)
쥐고 있는 것	주는 것(4:15-16)

3) 교회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함께 분투하며 '한마음 한뜻으로' 걷는 이들의 합입니다(1:25, 27; 2:2)

4) 다만,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걸으려면 무엇보다 '겸손'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("오직 겸손한 마음으로", 2:3).

5) 도무지 겸손하기 어렵다면, 그리스도의 마음(겸손과 자기 희생)을 본받아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(2:5-11).

<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다>

(1) 하나님께서 '불러 세우신'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에도 참여하는 이들입니다.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하고 익숙한 '나은 것' 대신, 세상에겐 생소한 '더 나은 것'을 기꺼이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.

(2) 이 어려운 선택을 하려면 서로 간의 협력이 필수이지만, 반드시 겸손을 갖춰야 함께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. 겸손이 없으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입니다.

(3) 그토록 긴요한 겸손이 쉽지 않은 까닭에 빌립보서는 명령합니다. "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"(2:5).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 건 그분의 마음(겸손과 자기 비움)에서 시작된 겁니다.

(4) 겸손,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이며, 교회가 살 길입니다. 겸손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.